

성남
일화 VS 수원
삼성

‘왕중왕’ 가린다

■ 프로축구 챔프 1차전 19일 탄천운동장서

‘데헤란 대표팀 차출 파문’ 속에 이번 주말을 시즌 프로축구 ‘왕중왕’을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진다.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 일화와 후기리그 우승팀 수원 삼성은 19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챔피언 결정 1차전을 벌인다.

▲‘데헤란 차출 파문’ 특집은

베어백 감독은 15일 테헤란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축구 예선 이란과 원정 경기에 성남의 미드필더 김두현, 골키퍼 김용대와 수원의 오른쪽 풀백 조원희를 데려갔다.

세 명 가운데 조원희만 선발로 나와 후반 41분 조성환(포항)과 교체될 때까지 86분을 뛰어 했다. 김두현과 김용대는 벤치에 앉아 대기했지만 단 1분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수원이 손해를 봤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오히려 김두현이 성남의 핵심 전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학범 감독이 느끼는 허탈감이 더 클 수도 있다.

김두현은 이란전에 나오지 않았지만 평균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수원도 나름대로 팀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펼쳐야 할 조원희가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시간을 소화해 체력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분위기는 수원…전력 완성도는 성남 현재 두 팀의 분위기 싸움에서는 후기 리그 중반까지 1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벌이며 일찌감치 후반기 우승을 차지한 수원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성남은 후반기에 힘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 완성도 면에서는 수원보다 약간 우위에 있지 않느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남은 부상으로 올 한 시즌을 거의 쉬다시피한 2004년 득점왕 모파가 지난 11일 FC서울과 플레이오프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며 킬러감각을 회복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수원은 국내 최강의 허리 진동을 구축하고 있지만 1선 공격진의 화력에서는 성남에 떨어진다는 평을 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차전 판도는 성남의 전방 화력과 수원의 허리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진표기자 lucky@kangju.co.kr

광주 정경호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김용희 포함 21명 제대

“충성,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는 16일 “군인신분으로 지난 2년간(05~06시즌) 광주상무에서 뛰어온 정경호(사진)와 김용희 등 21명의 선수들이 17일 전역한다”고 밝혔다.

제대 선수들은 전역과 동시에 각 소속팀으로 자동 복귀된다.

제대 선수들의 소속 구단은 수원(정윤성, 남궁성, 박주성, 손승준), 포항(최종범, 김석우, 김광석, 차철호), 서울(박옹호, 박요셉-12월 1일제대), 성남(고범수, 최재영), 부산(김용희, 김수형), 부천(이동근, 한동진-현제주Utd), 울산(정경호, 권정혁), 전북(이용



제, 전남(홍성요), 인천(박혁순) 등이다.

이들 중 박옹호, 최종범, 김용희, 강용경, 정경호, 박요셉은 광주에서 프로통신 100 경기를 출전하는

영광도 누렸다. 한편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22일 신입선수 2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신입들은 2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 내년 1월 5일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퇴소 후에는 성남에 위치한 국군체육부대로 이동,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진표기자 lucky@kangju.co.kr

한국 출전…이란에 패

아시안컵 축구 최종예선

한국이 출전결과 이란에 패해 2007 아시안컵 축구대회 예선 조별리그를 2위로 마감한 가운데 바레인과 우즈베키스탄이 막차로 합류하면서 본선 진출 16개국이 모두 확정됐다.

한국은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간) 이란에서 펼쳐진 2007 아시안컵 최종예선 B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후반 3분 이란의 공격수 에나야티에게 헤딩 결승골을 허용하고 후반 45분 바다마키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0-2로 무릎을 꿇었다.

이미 본선진출권을 확보한 한국은 이날 폐쇄 3승2무1패(승점11)를 거두면서 이란(4승2무·승점14)에게 조 1위를 내주면서 2위로 예선 조별리그를 마감했다.

또 바레인은 16일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쿠웨이트를 2-1로 꺾고 본선 진출 자격을 얻었다.

바레인과 우즈베키스탄의 합류로 내년 7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공동 개최될 2007 아시안컵 본선 출전국 16개 팀이 모두 가려졌다.

내년 대회예선 예선에서 조 1, 2위를 차지한 A조의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B조의 이란과 한국, C조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오만, D조의 호주와 바레인, E조의 이라크와 중국, F조의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 등 12개 팀이 공동 개최국 4개 팀과 함께 우승을 다투게 된다. 16개 팀은 4개조로 나뉘어 본선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8강 토너먼트를 갖게 된다.

佛 앙리 결승골…그리스 제압

‘아트사커’ 프랑스 축구대표팀이 티에리 앙리의 결승골로 유럽챔피언 그리스를 꺾고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프랑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파리 생트 니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와 친선경기에서 전반 26분 윌리 사놀의 크로스를 앙리가 헤딩으로 꽂아넣어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프랑스는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4) 8강에서 그리스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잉글랜드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웨인 루니의 선제

골로 리드를 잡았다. 잉글랜드는 1969년 이후 네덜란드 원정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홈에서도 1996년 마지막 승리를 맞봤다.

그러나 잉글랜드는 종료 4분을 남기고 라파엘 판데르 파르트에게 빠아픈 동점골을 내줘 다같은 승리를 놓쳤다.

브라질은 스위스와 원정 A매치에서 루이사우와 카카의 연속골로 앞서가다 후반 더글러스 마이콘의 자책골로 킷였으나 힘겹게 2-1 승리를 지켰다.

이탈리아는 터키를 맞아 전반 안토니오 디 나탈레의 골로 앞서가다 후반 42분 독일

브라질, 스위스와 A매치 승
잉글랜드, 네덜란드와 비겨

월드컵 결승전 ‘박차기 사건’의 당사자 마테리치가 슬라이딩하며 건드린 불이 자책골로 이어져 1-1로 비겼다.

루마니아는 시프리안 마리카의 결승골로 ‘무적합대’ 스페인을 1-0으로 제압했고, 코트디부아르는 헬시 스트라이커 디디에 드로그바의 득점포로 ‘바이킹군단’ 스웨덴을 1-0으로 물리쳤다.

한편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예선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는 마케도니아를 2-0으로 완파해 본선 진출 전망을 밝게 했다.

스포츠날기

17일(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11:00-KBSN SPORTS)

▲남자프로골프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최종라운드(18:50-MBC)

▲FIVB 세계 남자배구 선수권(쿠바-브라질)(13:50-Xports), <튀니지-한국>(17:50-Xports)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14:00-KBS1)

▲영천 올스타 씨름대회(15:10-KBS1)

▲프로농구<오피온-LG>(18:50-SBS 스포츠)

▲대학장사씨름 1차대회 응장급(19:00-MBC ESPN)



男 못지않는 펀치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여자권투협회(WBCF) 밴드급 대회 4라운드에서 노리코 카리야(일본)가 엘리사 올리비아에게 펀치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귀 덱의 자녀도 무조건 100점! 자신(自信) 있습니다!

제작국: 미국 / 제작년도: 2006 / 제작사: 퍼포먼스 미디어 그룹

종학 IBT 토플 종합반
● 미국대학 진학, 학부, 석사, 유학 등
● 초·중·영어/수학 100점반
● 해외 출국 청약 및 출국 허가증 발급

062-222-6253

동아외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

수능시험 끝!! 이젠, 중국어 시작!!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
● 수능성 특별반
● 3개월 미리 중국어 학습
● 리듬자이나 中國語 学院

02-222-6253